



사진기자와의  
간접

## 아빠와 난 길 동무·말 동무

요즘 광주 총장로 일대에는 다음달 7일 개막하는 '추억의 7080 총장축제' 분위기로 한창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옛 전남도청 앞 광장 일원에서는 행사 20일을 앞두고 축제 성공을 기원하는 점화식과 함께 거리 퍼레이드가 펼쳐졌습니다.

늦더위에도 행사장에는 주말의 흥겨움을 만끽하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가을 햇살처럼 화사한 젊은 연인들의 모습도 눈에 띄었고, 모처럼 교실에서 벗어나 여유를 즐기는 학생들의 이살스런 모습도 곳곳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어느 광경보다 포근했던 모습은 사진 속 두 부녀의 웃모습이었습니다.

머리를 끌어 놓은 꼬마 아가씨가 몸이 불편한 아빠의 말동무가 되어 주말 외출에 나섰습니다.

능숙하게 아빠의 전동 휠체어에 올라서서 재잘 재잘 웃음을 피우던 꼬마 아가씨는 아빠와 찰떡

호흡을 과시하며 사람들 속을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아빠의 넓은 어깨에 기대고 있는 꼬마 아가씨와 딸아이의 웃음을 등에 업고 있는 아빠. 두 부녀는 모처럼 신나는 주말을 보냈습니다.

뒤를 돌아보았을 때 누군가 자신을 따뜻한 표정으로 지켜봐 주고 있다면 그것처럼 든든한 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언제든 기쁠 수 있는 따뜻한 아빠로 거친 세상에 큰 버팀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흘러 꼬마 아가씨가 진짜 아가씨가 되었을 때도 두 부녀가 지금처럼 서로에 기대어 정답게 길을 걸어 가겠죠?

경총 커버린 키 때문에 꼬마 아가씨가 더 이상 아빠의 전동 휠체어에 오를 수는 없겠지만... 길동무가 되어 나란히 길을 나설 두 부녀의 모습을 상상해봅니다.

/나명주자 mjna@kwangju.co.kr

## 오늘의 유머

없는 일이다.

### ■ 그때그때 달라요 ②

-남의 남편이 설거지를 하면 공처가요, 내 남편이 설거지를 하면 애처라요.

-남의 아내가 못생겼으면 '그 수준에서 여자를 골랐으니 당연하지.'라고 생각하고, 내가 아내가 못생겼으면 '내가 여자얼굴에는 워낙 초연하잖아.'라고 생각한다.

-미누라가 죽으면 화장실에 가서 웃고, 남편이 죽으면 시집식구 몰래 조의금부터 헤아려본다.

-내내가 멋을 부리고 명품 옷을 입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남편이 멋을 부리고 명품 옷을 입으면 바람이 난 것이다.

### ■ 친구의 재치

친구가 거실에 놓을 안락의자가 필요하다고 하자 남자가 서재에 있던 여분의 의자를 선물로 주었다. 며칠 후 친구가 찾아와 돈을 건넸다.

"고마워 여기 5만원이 있네."

"친구끼리 무슨 돈을 받아? 봤어. 부담갖지 마."

남자가 돈을 받지 않으려고 하자 친구가 웃으며 대답했다.

"이 돈은 꼭 받아야 해. 난 그 의자를 이웃집 사람에게 10만원에 팔았거든!"

### ■ 그때그때 달라요 ①

-며느리는 남편에게 쥐어 살아야 하고, 딸은 남편을 휘어잡고 살아야 한다.

-남의 자식이 어른에게 대드는 것은 벼룩없이 키운 탓이고, 내 자식이 어른에게 대드는 것은 자기 주인이 뿐인 것이다.

-사위가 처가에 자주 오는 일은 당연한 일이고, 내 아들이 처가에 자주 가는 일은 뜻대

### ■ 성적표의 행방

중간고사가 끝난 지 며칠 후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했다.

"얘 성적표가 나올 때가 된 것 같은데. 성적표 좀 보자"

그러자 아들이 대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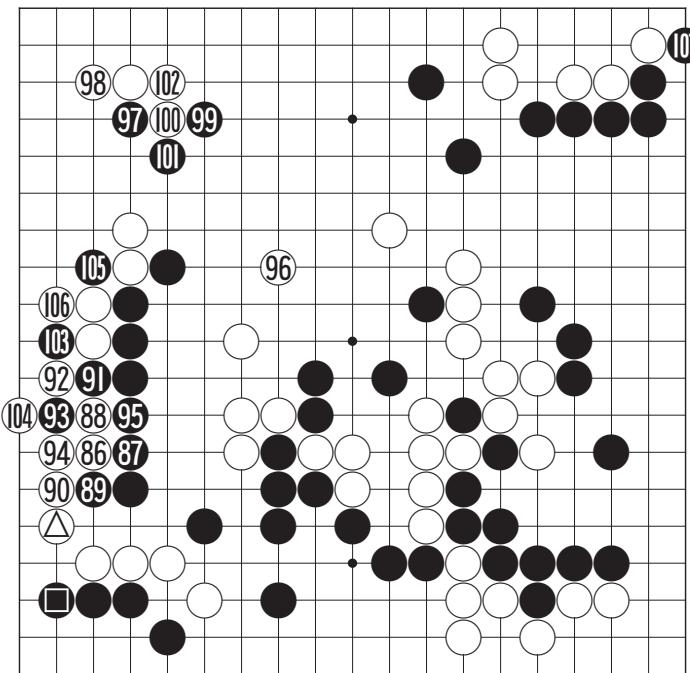
"친구가 빌려갔어요. 자기 아버지에게 겁을 주고 싶다고 했어요."

## 제17회 光日盃 광주·전남 징장비독대회

### 승부수 불발

개인전 결승전 7보(86~107)

白 박광주 5단 黑 김영수 5단  
(포스코) (전남교사회)



### 〈참고도〉

백 △는 ■에 젖히는 수와 86에 두어 좌변으로 연결하는 수를 막보고 있다. 김영수 5단이 귀에 침입하여 승부수를 날렸지만 백

광주 5단은 이 수를 준비해두고 있었던 것이다.

흑 ■로 '참고도'의 흑 1로 막는 것은 백 2 이하 6까지 흑이 안된다.

이 수로 인해 백 88까지 선수로 연결하게 되어서는 흑의 승부수를 실패로 끝나고 흑이

후수까지 잡아 백 96으로 중앙의 흑 너점이

움직여 보지도 못하고 사로잡혀서는 백의 대성공이다.

이어서는 흑이 실패가 지명하며 귀에서 얻은 것은 실리로는 좌변을 통한 백의 실리와 중앙마저 잡힌 순례와는 비교할 수 없게 되었다.

김영수 5단 실패를 의식하고 얼굴이 상기된 채 바둑판이 뚫어질 듯이 노려보더니 흑 97로 블여 좌총우돌하기 시작한다. 그런 다음 이번에는 또 107로 우상귀에 젖혀 전기를 찾고 있다.

〈오규철 9단·본보 바둑 해설위원〉

대한주택공사광주전남지역본부

EL DORADO RESORT/SILKEL 엘도라도리조트

## 굿모닝 잉글리쉬 <1151>

How's the new place?

그 새로운 곳은 어때?

A : How's the new place?

B : All right. I will get used to the apartment.

But it sure was fun having John as a room-mate.

A : That may take some time to get over.

B : Yeah, but life goes on.

A : 그 새로운 곳은 어때?

B : 괜찮아. 그 아파트에 익숙해질 테니까.

룸메이트 존과 함께 지냈던 것은 정말 재미있었어.

A : 그런 것도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잊어 질 거야.

B : 그러겠지, 하지만 시간이 훨씬 뒤겠지.

\* get over = 있다

\* sure : 확실히, 틀림없이

\* 나는 그 부서에 적응할 거야.

= I will get used to the department.

\* 나는 학업에 적응할 거야.

= I will get used to school.

## 오하요우 니흔고 <1151>

財布(さいふ)が大(だい)ピンチです。

(금전적) 출혈이 너무 커요

A : 今月(こんげつ)は財布(さいふ)が大(だい)ピンチです。

B : ですよね。

今月(こんげつ)は、お盆(ぼん)まであって...

A : 이번 달은(금전적) 출혈이 너무 커요

(직역 : 이번 달은 지갑이 빙자예요)

B : 그렇죠?

이번 달은 추석(명절)까지 있어서...

ピンチ : 위기라는 말인데요, 우리나라에서 돈을 많이 썼을 때 "출혈이 커"라고 표현을 하듯이 일본에서는 "財布がピンチ" "財布(さいふ)が大(だい)ピンチ"라는 말을 써서 지출에 타격이 큰 현재의 상황을 표현합니다.

## 니하오 쟁구워 <228>

你的客厅好漂亮。

당신의 거실은 매우 아름답네요

A: 你的客厅好漂亮。

ni de keting hao piashlang

B: 谢谢。

xie xie

A: 你的房间在哪里?

ni de fangjian zai nali

B: 在这边。

zai zhidian

A: 당신의 거실은 매우 아름답네요,

B: 고맙습니다.

A: 당신의 방은 어디인가요?

B: 이쪽이에요.

客厅 [keting]

漂亮 [piashlang]

房间 [fangjian]

漂亮 [piashlang]

## 한자 이야기 <868>

四十初襪(사십초말)

넉사, 열십, 처음 초, 버선 말

사십초말(四十初襪)은 '마흔에 첫 버선'이란 뜻으로 나이 들어 비로소 오랫동안 바라던 일을 처음 하게 되었을 때 쓰는 말이다.

조선 후기의 학자 조제삼(趙在三)이 지은 '송남잡지(松南雜識)'는 일종의 백과사전으로 천문(天文)·인사(人事) 및 동식물에 관한 사항을 33부류로 나누어 기록하고 있다. 그 중의 하나로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다.

옛날에 어느 유명한 현인(賢人)의 부인은 바느질 승기가 지독히도 없어서 나이 사십이 되어서야 가까스로 버선 하나를 만들 수가 있었다. 그런데 온갖 정성을 들어 만든 그 버선은 자루 만큼이나 커서 지극히 불편이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남편은 그녀가 버선을 짓게 된 것이 무척 대견스러웠던지 마치 자랑이라도 하듯 그것을 신고 제자들 앞에 당당한 모습으로 나왔다. 이를 본 어느 제자가 그의 승기(手)에 불편이 없는 버선을 신고 있는 것을 이상히 여겨 그 까닭을 물어 태연스럽게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고 한다. "마흔에 내 마누라가 지은 첫 버선인데 내가 신어 주지 않으면 누가 신겠는가?"

## 리빙 센스

### 나쁜 자세 ②

#### ◇ 굽 높은 구두를 신는다

하이힐은 무릎과 고관절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퇴행 관절염의 원인이 되기 쉽다. 신발을 선택할 때는 모양보다는 편안함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 발에 잘 맞고 굽이 낮은 신발을 골라 몸에 무리를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 ◇ 바닥에 앉는다

책상다리를 하고 앉아 있을 때는 고개를 내밀고 구부정한 자세를 취하기 쉽다. 이때 등과 허리에 무리가 많이 가게 되고 골반도 틀어져 양쪽 다리 길이가 달라지기도 한다. 바닥보다는 의자에 앉는 습관을 들이고, 바닥에 앉을 때는 등반이 있는 좌식 의자를 사용하는 게 좋다.

#### ◇ 다리를 꼬고 앉는다

이런 자세는 골반을 틀어지게 하고 척추를 휘게 한다. 철액순환 장애로 다리가 자리고 요통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짧은 차마도 다리를 한쪽으로 모아서 앉게 만들어 골반에 뒤틀려 양쪽 골반의 높이와 다리의 길이가 달라지기 쉽다.

###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9월 23일(음 8월 24일 丙寅)

**子** 36년생 서로 다른 나에게 나쁜 좋은 없다. 48년생 부친의 건강 도 알려보고 인사를 올려라. 60년생 주변 이웃을 잘 살피면서 가야 한다. 72년생 시비를 가리는 송사가 발생한다. 84년생 정리를 잘하고 드는 저절로 생긴다.

**丑** 37년생 모든 일이 난조로다 신중하게 대처해야 한다. 49년생 자기 사람으로 주변을 조절하라. 61년생 우연한 기회 좋은 일로 연결되거나 철저하게 준비하라. 73